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10회)

—전도관 5편 이만제단 시대 2부

차 례
전도관 5편 이만제단 시대 2부
一. 박태선 영모님
1) '엄마' 소리
2) 소 울음소리 (우명성(牛鳴聲))
3) 우명성(牛鳴聲)은 엄마성(唵嘛聲)이다
二. 특별한 엄마 박태선 영모님
1) 특별한 엄마
2) 삼팔목운(三八木運) 시황출(始皇出)된 박태선 영모님

一. 박태선 영모님

1) '엄마' 소리

광야의 외치는 소리의 주인공은 '엄마'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누가 사키지도 않은 '엄마'라는 호칭은 엄청난 위세를 떨치면서 울려 퍼져 나가게 된다. 이러한 광야의 외치는 소리의 주인공인 박태선 님에 대한 '엄마'의 호칭은 인류의 구세주로서의 '엄마'가 아니라 구세주의 엄마로서의 호칭이다. 다시 말하면 박태선 님은 구세주의 엄마라는 말이다. 구세주가 출현하여 인류의 엄마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엄마' 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곡식같이 부흥될 것이요'(호14:7)라고 기록된 말씀대로 전도관으로 교인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다. 그런데 누구의 입을 통하여 시작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박태선 장로님을 뵈던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 '엄마' 소리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참으로 기이하고 경이로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겨우 말을 하는 어린아이에서부터 허리가 꼬부라진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박태선 장로님만 보면 '엄마'라고 부르면서 달려드는 것이었다.

당시 박태선 장로님의 나이는 약 38세 정도였다. 박장로님은 처음에는 좀 난처해하는 듯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엄마'라고 외쳐 불러대니 "주책 좀 짝짝 부리라"고 야단치곤 했다. 그러나 교인들은 막무가내였다. '엄마' 소리는 점점 더 극성스럽게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 '엄마' 소리는 마치 천지를 진동시키듯 했었다. 결국 박태선 장로님은 '엄

마'라는 명칭을 받아들여졌다. 그리고는 당신을 가리키며 '엄마'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음을 고백하였다. 이후부터 박태선 장로님의 호칭은 '엄마'로 통일되었다. 이 '엄마'의 호칭은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불려져 나갔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450년전 남사고 선생의 유록(遺錄)에도 예언되어 있으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더 나아가 남사고 선생은 '엄마' 소리는 '엄마'의 호칭이 있다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으니 소 울음소리를 찾는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소 울음소리(우명성(牛鳴聲))

우리 단군 민족은 천손민족(天孫民族)이라고 한다.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특별히 하늘의 보살핌을 받는 백성이라는 뜻이다.

세계에 많은 민족이 있고 또 많은 종교가 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믿어 온 종교를 최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모든 종교의 존재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국회복의 역사를 달성하시기 위한 계획을 성공적으로 시작하실 때까지의 방편적 종교들인 것이다.

그 하늘의 회복의 역사를 한민족을 통하여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천손 민족이 살고 있는 한국 중에서도 다른 곳도 아니고 소 울음소리 나는 곳에 구원이 있다고 우리민족의 성현을 통해서 이구동성으로 예언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되니 도에 좁 식견(識見)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소 울음소리'와 비슷한 무엇이 추상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있는 곳이 소 울음소리의 본고장이라고 주장하며 어리석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운 강일순선생의 태을주(太乙呪)가 단적인 예가 된다.

咩咩咩 太乙天上元君

츄츄츄츄 태을천상원군
咩咩咩 耶那都來 咩咩唵哩婆婆訶
츄츄츄츄아도래 츄츄츄츄사바하

강일순 선생의 태을주는 소 울음소리 나는 곳에서 구원의 진인이 출현한다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주문이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강일순 선생은 소 울음소리 나는 곳에서 완성자 상제 하나님인 대성진인(大成真人)이 '엄마'의 역할로 출현하여 인류구원의 역사를 할 것을 알리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이 주문을 알려 주며 대비하도록 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분을 기린다는 많은 종교인들은 그분의 깊은 뜻을 모르고 그저 태을주를 외우면 그것이 소 울음소리가 나는(牛鳴聲) 곳이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주문을 열심히 외우면서 자기네 종교가 성현들이 예언해 놓은 '소 울음소리'나 '엄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츄츄'라는 뜻이 '소울음' 혹은 '소울음'이니 주문을 외우면 소 울음소리가 된다는 것이다. 소 울음소리가 '엄마'이지 어찌 '츄츄'란 말인가.

사실 강일순 선생이 만들어 놓은 이 태을주는 '소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소 울음소리'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 주어 꼭 '소 울음소리' 나는 곳으로 찾아가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더욱이 강일순 선생은 자신이 일구어 놓은 터전이 아닌 판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강일순 선생이 일구어 놓은 그곳에서 아무리 태을주를 열심히 외운다고 해도 그곳이 '소 울음소리가 나는 곳'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법 판안에 드는 법으로 일을 꾸미려면 세상에 틀켜서 저해를 받나니 그러므로 판밖에 남모르는 법으로 꾸미는 것이 완전하니라(개벽과 성경 5:2)"

여기서 강일순 선생이 말한 '판밖의 남모르는 법'이란 강일순 선생이 일구어 놓은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루어짐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태을주를 외우는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여 소 울음소리 나는 곳을 분명히 찾아 가야 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더욱이 다음에 소개할 강증산 선생의 말은 당신이 일구어 놓은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비유로 들어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도 항상 얻어 쓰려면 쓸 때마다 얼굴을 쳐다 보임과 같이 쓰러져 가는 집에 그대로 살려면 무너질 열려가 있음과 같이 남이 지은 것과 남은 것을 그대로 쓰려면 불안과 위기가 따르나니 그러므로 새 배포를 꾸미는 것이 옳으니라(개벽과 성경 5:1)"

이와 같은 강일순 선생의 말씀은 당신이 일구어 놓은 터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비유하여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강일순 선생은 태을주를 외우는 그곳을 말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소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가야 할 것을 깨우치기 위한 방편으로 외우게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강일순 선생이 말한 소 울음소리 나는 곳은 그곳이 아닌 다른 곳을 알 수 있다. 또 그곳이 아니라면 태을주도 역시 '소 울음소리'가 나는 본고장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또 어떤 곳에서는 진인의 성품을 우성(牛性)이라고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소 성품을 가진 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이 소 울음소리라고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면 소 울음소리의 실체는 진정 무엇인가?

3) 우명성(牛鳴聲)은 엄마성(唵嘛聲)이다

우명성 즉 소 울음소리는 엄마성 즉

엄마를 찾는 소리라고 말하고 있다.

牛聲在野唵嘛聲中 非雲眞雨
우성재야엄마성중 비운진우
喜消息에.....歌聲總論(가사총론)
희소식

"소 울음소리가 들에 짝 깔려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는 엄마를 부르는 소리다. 그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나는 곳에서는 구름이 한 점 없는데도 진리의 비가 쏟아지는 희소식이 있다"라고 한 말이다.

다시 말하면 들에 울려 퍼지는 소 울음소리는 엄마를 부르는 소리인데 그 엄마를 찾는 소리가 나는 곳에서는 진리의 비 즉 감로 이슬은혜가 내리는 희소식이 있는 곳이라는 내용이다. 소 울음소리에 대해서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위의 예언에서 밝힌 것같이 감로 이슬은혜가 내려 모든 중생에게 완성의 대도를 이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소 울음소리'는 '엄마를 찾는 소리'라고 예언되어 있다. 이미 독자들은 이 정도 설명을 하면 '소 울음소리'가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소가 우는 것은 '엄마'하고 우는데 그와 같이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와 같은 소 울음소리를 빚대서 사람들이 '엄마'라고 부르는 일이 있을 것을 간접적으로 예언해 놓은 것이다.

아무도 알 수 없게 숨겨서 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사방에서 별의 별 내용을 말하면서 소 울음소리 나는 본고장이 자기네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진짜와 가짜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 그와같이 구분이 되어야 참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위에서 전도관 교인들이 박태선 장로님을 '엄마'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 바 있다. 전국 방방곡곡에 전도관이 들어서지 않은 곳이 없고 전도관이 들어 선 곳에서는 예외없이 '엄마' 소리가 진동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있을 것도 남사고선생은 격양유록 생초지락에 다음과 같이 예언

해 놓고 있다.

面面村村 牛鳴聲
면면촌촌 우명성

"진국 면면 촌촌마다 엄마를 부르는 소 울음소리"라는 뜻이다. 전국 방방곡곡 어디서나 소 울음소리가 진동한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450년전 남사고 선생이 '엄마'나 자세히 예언하고 있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또 가사총론에는 다음과 같은 말을 예언하고 있다.

牛聲在野十勝處엔 牛鳴聲이 狼藉하고
우성재야십승처 우명성 낭자

牛聲出現見不牛라
우성출현견불우

"소 울음소리가 들만에 짝 깔린 승리하신 하나님인 정도령이 계신 곳엔 소 울음소리가 낭자하다. 그런데 그 소 울음소리 나는 곳에서는 소를 볼 수가 없더라"

소 울음소리라는 것이 실제로 소가 우는 것이 아님을 알리기 위하여 남사고 선생은 예언 속에 소 울음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 보니 막상 소는 보이지 않는다고 의미 심중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 소 울음소리가 나는 곳이 하늘의 백성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곳이라고 했다.

三神山 牛鳴地 牛聲狼藉始出天民
삼산산하 우명지 우성낭자시출천민
(仙綱傳(세론시))

"세 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소 울음소리가 나는 곳인데 소 울음소리가 낭자하게 퍼지는 그곳에서 하늘의 백성이 처음으로 출현한다."

이와 같이 소 울음 소리가 낭자하게 울려 퍼지는 곳에서 하늘의 백성이 처음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엄마라고 불러대는 무리 중에서 하늘의 백성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분들이 광야의 외치는 소리의 주인공인 박태선 장로님을 통하여 처음으로 출현하는 하늘의 백성인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이곳에서 세 분 하나님이 나타나서 인류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게 된다는 내용이다. 온 인류는 이곳을 주시하고 이곳을 찾아야 한다.*

도덕경33장 해설

이 장은 앞장의 내용을 일단락 짓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내용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앎(지식)에 대해서다. 어떠한 앎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걸까? 보통 사람이 아닌 도인의 앎의 세계는 정녕 다른 차원의 세계일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앎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으려면 먼저 자신의 앎의 편견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경험과 앎의 그것으로부터 접근하려 든다면 노자 선생의 귀한 말씀이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것이다. 그러려면 지금껏 살아온 자신의 앎과 경험을 잠시 비워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의 자로 재보고 맞다 틀리다 판단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때



일같이 세속에 발붙이고 분주히 사는 사람이 세속을 초탈한 도인의 깨달음의 세계에 무지할 수밖에 없으니 먼저 자신의 그릇을 비워놓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왜냐하면 대개의 사람들은 타인과 만물에 대한 앎에 대해서는 수준급이지만 자신의 내면을 밝히 아는 마음공부에는 서투르기 때문이다. 도덕경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이끌고 나아가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도한 세상에서의 지치고 힘든 고뇌에 찬 삶의 짐을 덜고 맑고 담백한 정신의 자유와 평화를 더욱욱 원

知足者富

지족자부

족함을 아는 자는 부유한 사람이다

한다면 말이다. 도인은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앎보다도 자신의 내면을 아는 수행에 대하여 더 의미를 두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깨달은 자만이 그 답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수박이 달고 시원하다고 해도 먹어보지 않고서는 그 맛을 알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자신을 갈고 닦아 무한한 정신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삶이 다른 무엇보다도 좋다는 것을 아는 자는 도를 떠나서 살 수 없다. 도인이 자신을 밝히고 들어가는 놀랍고도 경이로운 깨달음의 경

지와 최상의 정신적 열력을 아는 것은 무도한 세상에서 한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 삶의 활력소와 생동감을 불어넣어 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知人者智(지인자지):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인간사 길흉화복은 사람을 아는 것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회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도 잘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우매

한 사람이 있다. 반면에 타인에 대해서라도 아는 정도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自知者明(자지자명): 자신을 아는 사람은 더 밝은 사람이다

대부분 사람에 대한 이해와 앎의 방향이 타인을 향해 열려 있게 마련이다.

본질적으로 인간이란 공통성을 감안할 때, 자신을 알게 되면 타인에 대해서도 더욱 잘 알게 됨으로써 밝은 빛에 거함하고 할 수 있다. 밝은 세계는 지혜를 넘어서 고차원의 경지를 말한다.

勝人者有力(승인자유력): 타인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는 자다

물리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힘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타인을 이기는 것은 힘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自勝者強(자승자강): 자기를 이기는 자는 강한 자라고 할 수 있다

타인을 이긴 자는 힘이 있는 정도라

평 가절하 될 수 있지만, 자신을 이긴 자는 진정 강한 자라는 것이다.

知足者富(지족자부): 족함을 아는 자는 부유한 사람이다

세상에서도 스스로 족하게 생각하는 것을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진리이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게 생각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強行者有志(강행자유지): 굳세게 행하는 자는 의지 있는 자다

매사에 뒤편 굳세게 행하는 자는 의지가 있는 자라는 것이다.

不失其所者久(부실기소자구): 그 마음의 근본 자리를 잃지 않는 자는 영구하고 그 마음의 처소를 거하게 된다

도를 닦는다는 것은 항상 그 순수본성(절대본체)의 마음자리를 유지 존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영육 간에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死而不亡者壽(사이불망자수): 죽음에 이를지라도 위와 같은 이치를 잊지 않는 자는 장수한다

도를 완전히 통하게 되면 생로병사를 초탈하고 무한한 자유와 평화를 얻어서 열라 가운데 살게 됨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죽더라도 사는 날까지 영육 간에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장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처치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